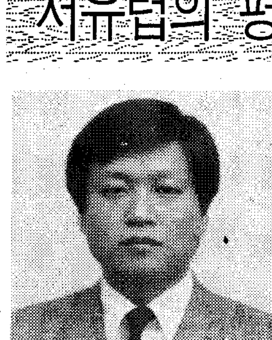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 올바른 평화론의 정립을 위하여 〈3〉

평화 더이상 이용될 수 없다!

서유럽의 평화운동 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시 형
〈교원대 강사〉

냉전 상황이 서유럽 평화운동을 초래한 근본원인
유럽통합운동은 평화적인 국제질서 확립에 기여

글싣는 순서

1.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의의
2. '사회주의 평화관'의 발전과정
3. 서유럽의 평화운동 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구권 변혁
5. 민족모순의 해결고리로서 정립되는 평화운동 (아·태지역 중심으로)
6. 한반도내 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7. 기획르뽀

I. 서론

'서유럽'이라는 말은 단지 지리적 위치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동유럽'과 대비되어서 생각되는 개념이다. 이와같은 대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냉전체제에서 비롯된 사고의 산물인 것이다.

냉전은 대전이후 세계적인 세력으로 등장한 미·소 두 초강대국의 대결이다. 이 두나라는 모두 보편적인 이념으로 무장되었을뿐만 아니라 각기 자기네의 이념이나 생활방식을 세계전체에 전파하려는 사명감까지 갖고 있었다. 또한 이 두나라는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나 패권추구, 또는 경제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군사, 문화등 모든 면에 걸쳐서 대립을 하였다.

이러한 대립체제는 두나라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화됨에 따라서 유럽도 이 체제에 편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냉전체제의 상황에서 서유럽의 평화운동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전쟁의 위협, 특히 동·서유럽에 배치된 핵무기의 가공할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서유럽인들이 행한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평화운동의 한 측면인 반핵운동이 추구하는 목표와 그 성취,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두번째로는 평화적인 국가간 협력체의 일종인 유럽공동체의 통합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논하고자 한다.

II. 평화운동의 한 측면으로서의 반핵운동

서유럽에서의 반핵운동은 대중에 기반을 둔 운동이다. 이 운동들은 압력단체와 달리 우선적으로 정상적인 정치적 연결고리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 호소를 한다. 따라서 이 운동은 국가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의도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며, 도덕적 측면이 강한 운동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취시키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대중운동으로서의 반핵운동과 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운동이 추구하는 목표와 성취, 그리고 한계를 알 수 있다.

1958년에서 1965년 사이의 평화운동은 냉전의 악화와 유럽이 주요목표가 된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왔다. 특히 1955년에 일본에서 열린 원·수폭금지세계대회를 계기로 반핵운동이 확산되었는데, 이 대회는 러셀과 아인쉬타인의 핵전쟁에 의한 인류전멸의 위험저지는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기초로 하고있다. 뒤이어 조직된 '미국비폭력행동위원회'와 '영국 100인위원회'가 반핵운동을 뒷받침하였다. 1960년대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평화 및 군축을 위해 조직활동을 벌인 집단들은 1,500개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이 기간중에 이 운동이 기여한 면은 1963년의 핵무기 비확산 및 실험금지조약을 성립시키는데 역할을 한 반면에 대중적 지지를 정치적 행위로 전환시키는데는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상이한 집단들을 하나의 이슈로 결합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본질적으로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나타났을 때 많은 지지자들을 소외시켰다. 세째로,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전쟁과 같은 다른 사건들에 의해 도덕적 추진력이 일소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반핵운동은 환경에 대한 관심, 데땅뜨의 붕괴에 따른 신냉전의 대두, 그리고 핵전쟁의 잠재적 두려움을 일으킨 유럽에서의 선제무기의 배치에 따라 일어났다.

이 시기의 평화운동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우선 국제적으로 핵문제에 관한 대중적 자각을 일으켰으며, 인도주의적, 자유주의적, 그리고 도덕적인 감정에서 최선의 것을 활성화 시켰다.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정치적 논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었다.

이 운동은 유럽비무장운동(END)과 같은 국제주의를 고조시켰고, 남북문제에 관한 관심을 증진시켰으며, 국제평화에 대한 연구에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에너지와의 관계 즉 군-산복합체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보여, 환경운동에 추진력을 주었다.

이러한 면 외에 서유럽에서의 실제적 성취는 다음과 같다. 서독과 스웨덴에서는 녹색정당의 대두가 성공적으로 핵에너지 시설들의 더 많은 증설을 제한하거나 정지시켰다. 영국에서의 야당인 노동당은 강력하게 비핵방위정책을 재천명하였다. 서유럽에서의 대부분 사회주의 정당들은 강력한 비핵 로비들을 하였는데, 그들은 점점 주요한 교회들과 많은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에서의 반핵운동은 몇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적으로 어떤 조직화된 정치집단이라기 보다는 대중에 기반을 두고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도전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정부가 비타협적이 되며, 이운동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둘째로는 고르바쵸프 등장이래로 일어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변화가 데땅뜨의 가능성을 확대시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 바르샤바동맹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양기구가 가공할만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축이나 데땅뜨가 진행되더라도 완전한 핵무기의 폐기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진영의 핵무기 철폐는 대중운동이 가지는 반핵운동의 차원보다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에서의 반핵운동은 인류의 생존이 되는 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핵전쟁의 위협과 결과는 서유럽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전인류의 전멸이냐 아니면 생존이냐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핵전쟁의 위험을 피해야 하며, 지구상에서 그와같은 환경조성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서유럽에서의 반핵운동은 서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제기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평화적 지역협력체로서의 유럽공동체

금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전체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정치적인 사건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대개 2차에 걸친 세계대전과 러시아와 중국에 있어서의 혁명,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서 신생국의 독립일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거의 모두 대규모의 폭력사태를 수반하였거나, 혹은 그러한 사태가 뒤이어 일어날 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금세기는 레닌의 표현대로 '전쟁과 혁명'의 세기이며 대규모 폭력의 세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예들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들로써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변화이며, 아울러 1992년의 정치적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럽공동체의 통합운동일 것이다.

이 두사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특이한 점은 혁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예들과 비교하여 폭력적인 요소가 크지않거나 혹은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유럽 국가간의 통합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한번도 국가간의 전쟁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국제관계와는 달리 협력과 평화적인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혁명적인 사건일 것이다.

유럽통합운동에서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유럽인들의 근대적 성취인 주된 정치공동체로서의 근대국가를 유럽공동체가 대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 근대국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인들은 민족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즉 식민지개척이나 그들의 사상, 제도, 기술등을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전세계에 전파한 것이었다. 따라서 유럽인들에 있어서 근대국가는 자원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가진 정치조직일 뿐만아니라 마치 고대희랍의 도시국가에서 희랍인들이 가졌던 정치공동체에 대한 관점과 유사한 무대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즉 근대국가는 그들의 유일한 생활무대이며, 동시에 그들의 성취나 실패를 판정하는 도의적 기준일 뿐만아니라 단순한 국가가 아닌 조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을 주장하는 통합론자들은 이러한 근대국가의 성격이 현대에와서 변화되었다는 관점에서 그들 주장의 근거로 삼고있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적 여건에서 근대적 정치제도들의 부적합성과 국가들 사이의 불가결한 상호의존성에 주안점을 두어 근대국가 특히 근대국가의 주권 혹은 독립이라는 측면을 뛰어넘는 어떤 정치체를 구상하였다. 물론 양차대전을 겪고 난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근대국가에 대한 매력이 감소된데에도 기인하지만, 통합론자들의 통합논리가 활발하게 된 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성되기 시작한 유럽경제공동체(EEC)이었다.

유럽통합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능주의적인 면과 연방주의적인 면이다. 우선 기능주의적인 측면을 보면, 기능적인 필요에 따른 국가간의 협력체가 고도로 산업이 발달하고 다원적인 사회를 갖는 나라들 사이에서 마치 국내정치체제에 있어서의 정치과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기능적인 분야에 있어서 초국가적인 중앙기구가 결성되어 각 회원국내 여러 집단의 통합에 대한 이해나 요구를 일으키는 정책을 추구한다면 이 집단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이 기구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되는 소위 '유출효과(spil-over eftect)'에 의해 정치적 통합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게 되며, 국가의 주권은 관련된 행위자들의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이나 이 결정들의 무의식적인 결과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측면은 경제적인 기능의 통합에서 어느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둘째, 연방주의의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곤란한 많은 난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운동에 있어서 무시못할 저변을 이루고 있다.

이 관점은 유럽의 문화적, 역사적 통일성과 세계적인 업적들 그리고 유럽적인 정체성를 강조하며, 유럽이 본연의 자신을 되찾기 위하여 연방체로 통합하여야 하고, 미·소에 필적할만한 새로운 정치체를 결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양식에서 벗어나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평화운동은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치세력화 시켜내지 못한 소시민적 운동의 한계를 노정시켰다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목표를 앞세우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992년의 정치적통합을 앞에 두고 이 입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되며, 앞으로 유럽공동체의 통합방향이나 궁극적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단일한 정치통합체에 대한 기대나 기능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상호의존적인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운동에는 한계점이 있다.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민족국가의 문제이다. 즉 참여의 주체가 개별적으로 독립된 민주국가란 점이다. 따라서 초국가적인 기구에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통합의 원칙이라면 고유권한을 지키려는 주권의 원칙과 통합의 원칙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간의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추구가 개별국가내의 정치·경제적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은 공동체의 농업정책을 둘러싼 개별국가들간의 이견과 대립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는 이 공동체가 근대국가에 비교할만큼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공적생활의 터전이 되리라는 기대가 아직은 어렵다는 점이다.

즉 공동체적 그리고 추상적인 양면에서 국가의 대체물이 되기는 아직 때가 이르며, 현재와 같은 기능적 측면에 기초를 둘 때에는 민족국가와 같은 강한 충성심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은 두번에 걸친대전의 주전장이 되었던 암담한 과거를 지녔지만, 대전이후 현재까지 전쟁이 없는 가운데 평화로운 국가간 협력의 시대를 열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 이 면에서 유럽공동체는 평화적인 지역공동체의 한 모델로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변화에 따라 군사적인 대결의 위험이 감소된 현시점에서 새로운 화해의 국제질서에 유럽통합운동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부당한 평화란 거의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정당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평화만은 못하다." 이말은 1521년에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의 말이다. 이 경우는 현대의 고도문명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더구나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핵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 가슴에 와닿는 말일 것이다.

서유럽은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국제정치체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반면에 또한 그 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을 견딜 수 없는 비극의 전쟁에 동원시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했던 비극적 역사를 지닌 지역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후 성립된 냉전체제에 편입됨으로써 핵전쟁화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전 상황하에서 발생한 반핵운동은 서유럽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소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절대적인 생존권의 보장을 획득하려는 자발적인 의지의 표출이다.

대중운동으로서 조직화된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이운동은 범세계적으로 핵전쟁의 가공할만한 위험에 대한 인류의 자각을 일깨워 평화를 지향하는 도덕적 목적과 현실에서의 실현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화적인 지역협력체를 지향하는 유럽공동체의 통합운동은 국가간의 상호의존과 협력의 한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으며, 비록 민주국가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계점이 있지만 동유럽의 변화에 따른 평화적인 새로운 세계질서에 주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서유럽에서의 반핵운동과 통합운동은 그들이 겪어왔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타 지역들에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우가족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는 소리…

'목동은 놀지말고 농우(農牛)를 보살펴라
뜨물에 꼴먹이고 이슬 풀 자로 뜯겨
그루갈이 모 심으기 제 힘을 빌리로다…'
농가월령가의 한 귀절처럼 5월이 되면,
이 땅의 곳곳에서는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어가는 소리들로 분주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바쁠 때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일용할 양식을 애써 가꾸는 건강한 모습들 —
농촌에서, 어촌에서, 도시에서 …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제몫의 삶을 진솔하게
가꾸어 나간다면, 대지(大地)는 또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며 스스로를 일구어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와도 같이 편안하고 포근하게
이 땅의 삶을 감싸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이 대지를 굳게 밟고 설 때,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㊹